

아카누마 늪(銅沼)

아카누마 늪(구리 늪)은 1888 년의 반다이산 분화와 산체 붕괴로 형성된 적갈색에 말굽 모양을 한 화구호입니다. 현재는 비활화산이 된 반다이산 북쪽 산맥에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칼데라 안에 위치합니다.

물속에 포함된 수산화철의 함유도가 높아 호수가 동적색을 띠고 있습니다. 산성도가 너무 높아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없습니다. 늪에서는 반다이산 산맥에 있는 화구 분기공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.

아카누마 늪은 해발 1,0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위치합니다. 지질학자들은 아카누마 늪 땅 속에 스며든 호수가 내려가 낮은 곳에서 지하수가 되어 300m 정도 아래쪽에 있는 색채가 풍부한 고시키누마 호소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아카누마 늪과 발음이 같은 다른 아카누마 늪(赤沼)도 고시키누마 호소군 중 하나입니다. 각 호소로 흘러 들어가는 광물에는 양에 차이가 있어 각 늪에 따라 색과 산성도, 생태계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아카누마 늪이 얼면 유황의 색을 반영해 금색으로 빛나는 얼음 폭포인 ‘옐로 폴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옐로 폴은 알기 힘든 곳에 있기 때문에 보러 갈 경우에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와 동행합니다.